

강론



사순 제4주일(장미 주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마크(Land Mark)’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에펠탑, 중국 북경은 만리장성, 미국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립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의 랜드마크를 말하라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나라에 랜드마크가 있듯이, 세계의 미술관에도 그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는 ‘모나리자’가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는 ‘돌아온 탕자’가 있으며, 뉴욕현대미술관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통해 사순 제4주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고흐 역시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학교 입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신앙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 다. 그는 ‘특별전도사’의 자격으로 혹독한 탄광촌으로 자원했습니다. 고흐는 깨끗한 사택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자신은 탄을 캐다 다친 광부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월급은 모아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었고, 광부들과 함께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탄광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나 얼마 뒤, 그를 파견했던 교회는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고흐를 파면하였습니다. 전도사의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이 더럽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먹고 지낸다는 이유로 ‘전도사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흐는 탄광촌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려면, 나는 그런 예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그림으로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고흐의 그림 속에는 하느님께서 바라보시

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감자를 먹는 사람들」에 나오는 농부들은 초라하지만, 정직한 노동으로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식탁은 제대와는 달라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가장 깨끗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자리에 계십니다. 「성경책과 에밀 줄라」에서 펼쳐진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예언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다.” 고흐는 말씀을 덮지 않았고,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과 고통의 현실을 나란히 두며, 말씀이 인간의 상처 속으로 내려와야 함을 고백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서는 농부보다 태양이 더 크게 그려집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인간의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하늘에는 별이 소용돌이치듯 빛나지만,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고흐는 일부러 교회를 어둠 속에 남겨 둡니다. 하느님의 빛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고 불안한 밤하늘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고백입니다. 고흐의 삶을 노래한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래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당신이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혼탁했다.” 고흐가 너무 약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의 빛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순 제4주일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윗은 형들 가운데서 가장 작았지만,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는 죄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본다고 하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사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교회의 질서와 품위를 지키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하느님께서 먼저 바라보시는 마음과 고통을 충분히 보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에 맞는 사제가 되려 하느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흐를 파면했던 교회의 시선이 혹시 오늘의 내 안에 남아 있지는 않은지, 장미 주일의 기쁨 속에서 조용히 저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교회에 불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이미 밤하늘에 별을 켜 두셨습니다. 오늘 장미 주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이미 빛을 켜 두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들 또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치유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경순(요안나), 기길자(루치아), 김선미(소피아), 김성희(글로리아), 김연우 제이든(요셉), 김외분(프란체스카), 김지연, 마하해(스텔라), 박애경(마리아), 서지연(로사), 손현식(미카엘), 손현윤(가브리엘), 안길승(가브리엘), 양영도(이나시오), 엄찬길(찰스), 윤지희(미카엘라), 이복순 (카타리나), 이상원(스테파노), 이에린(세실리아), 임원욱(크리스티나), 전용환(요한), 정상욱(젬마), 정성문(요한), 차형래(테레사), 하정희(올리아), 한재민(야고보)

공 지 사 항

2026년 사목 목표

1.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지난 50년의 감사와 기쁨을 새깁니다.
2. 성령의 친교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3.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 친교실 확장과 사제관 신축을 준비합니다.
4.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영성·문화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5. 감사·친교·나눔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합니다.

- * 사순시기 간단 교리 - 5
- 주요 전례 일정
- 사순 제4주일(라에타레 주일): 3월 15일
- 꽃장식과 기악연주가 허용되고
- 사제는 장미색 제의를 입습니다.
- 성 요셉 대축일: 3월 19일 (의무 야님)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3월 25일 (의무 야님)

- 2차 헌금
- 3/14(토), 3/15(일)은 가톨릭 구호회를 위한 교구의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절 성경필사 - 잠언
- 마감 : 4/5(일) 까지 사무실 제출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안내 (미사 후)

날짜	구역
3/20 (금)	N코펠, 캐롤튼
3/26 (목)	코펠, 던컨빌, 갈랜드
4/3 (금)	성금요일 (3pm) 사목회 및 전신자

- 교구 성유 축성 미사 안내
- 일시 : 3/31(화) 5:00 pm
- 장소 : 과달루페 주교좌 성당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이날 본당 저녁 7시 30분 미사는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바다의 별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22(일) 1:10 pm
- 장소 : 성전
- 대상 : 활동단원, 협조단원

- 성삼일 및 부활 미사 전례 안내

4/2(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후 8시	주님 만찬 미사
오후 9시	주님 수난 조배 시작
4/3 (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오후 8시	주님 수난 예식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2차 헌금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4/4 (토)	주님 부활 대축일 - 파스카 성야
오후 8시	파스카 성야 미사와 세례식
4/5 (일)	주님 부활 대축일 - 낮미사
오전 11시	대축일 낮미사
오후 3시	
** 매 미사에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 2026년 달라스 교구 다문화 행사, 미사 안내
- 일시 : 5/16 (토) 4:00 - 8:30 pm
- 장소 : St. Ann Catholic Parish in Coppell
- 한국 문화를 알릴 공연 참가팀을 모집하오니 3월말까지 신청 바랍니다.
- 공연팀 2팀선정 (2팀 이상 신청 시 4/15경 공정한 평가 후 선정)
- 참가 문의 : 김정자 가브리엘라 443-257-0481

다문화 행사



- 4/2 성목요일 성체조배 순서 안내

9 - 10 pm	성가대, 청년회
10 - 11 pm	알렌, 맥키니
11 - 12 pm	W 플레노, E 플레노
12 - 1 am	E 프리스코, W 프리스코
1 - 2 am	얼빙
2 - 3 am	N 코펠
3 - 4 am	밸리랜치
4 - 5 am	코펠
5 - 6 am	캐롤튼
6 - 7 am	던컨빌
7 - 8 am	리차드슨
8 - 9 am	갈랜드, 시간되시는 모든 신자

- 선종소식
- 성명 : 김영무 올리안나
- 선종일 : 3월 1일 (87세)
- 고인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28일 까지 목주기도 집계	21,610 단	점심 봉사	재속회
---------------------	----------	-------	-----

건축헌금		교무금						
최영혜(1,000)	\$113,110.92	박윤아, 심윤권, 김갑용, 송동숙, 손명애, 강대진, 허영근, 박영진, 김선덕, 장재호, 김현주, 백수인, 김진, 천용완, 안영숙, 김원희, 김혜정, 함미애, 정기수, 한원희, 윤영주, 김득원, 김세길, 윤형석, 최윤, 서인택, 박태신, 박종수, 조준, 한미경, 이강원, 송광웅, 송강필, 이석호, 임원범, 윤안젤라, 박휘준, 김희성, 박수근, 안인현(2), 김순영, 이홍재, 이광휘, 양용예, 이동성, 박주원, 최지희, 김부천, 한준용, 주재억, 이선애, 최희진, 안승욱, 최윤경(2), 조귀순(2), Micha Kaulzarich, Peter Park, Edward Skelton, Anthony Han, W Jong Shon, Maria Demelo						
장은용(1,000)		건축	\$3,130.00	교무금	\$13,630.00	주일 헌금	\$5,537.00	
김현주(1,000)		일반 계정	\$310,363.53	Donation	\$300		주일 총액	\$22,597.00
백기손(1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36명	수 39명	목 31명	금 48명		
양용예(20)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85명	10시 358명	12시 380명	3시 65명	주일 합계	888명
김수용(10)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